

제5년차 제4회 사업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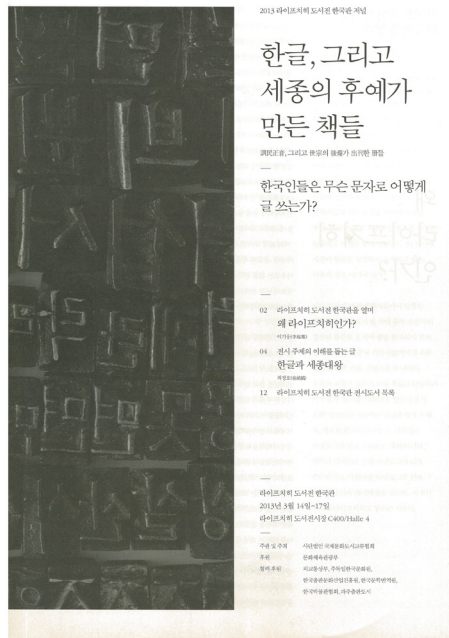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제2년차 제1회 사업

한글 訓民正音

그리고 세종의 후예가 만든 책들

2013. 3. 14-17.



제3년차 제2회 사업

한식 韓食

자연의 지혜로 빛은 점잖은 음식

2014. 3. 13-16.



제4년차 제3회 사업

한복 韓服

점잖고 정숙한 우리 옷

2015. 3. 12-15.



제5년차 제4회 사업

한국의 전통건축 韓屋

자연을 닮은 집, 지혜를 담은 집

2016. 3. 17-20.



들어가며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유럽의 대표적 출판문화축제인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어문화권과 독일어 문화권, 유럽문화권 간의 교류를 진행한다. 즉, 우리 협회는 비록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국가를 대신하여 여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중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은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는 주요 문화교류사업 중 하나이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서남부 유럽을 제외한 거의 전 유럽 지역을 포괄하는 광대한 독일어권의 최대 출판문화축제로서 독일어문화권의 문화적 기량과 열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행사 중 하나이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런던 도서전, 파리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등의 국제도서전과는 달리, 상업적 교류 목적보다는 책 페스티벌로서의 성격이 강하기로도 유명하다. 즉 출판사 간 교류가 아니라, 작가-독자 간 교류, 강연, 음악공연, 체험행사, 퍼레이드, 도서판매 등 문화 관련 이벤트가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의 주요 내용이고 풍경이다. 또한 제4전시관은 매해 국제관으로 활용되며 세계 40여 개국이 참가하여 자국의 문화 및 출판 역량을 홍보하는 거점이다.

우리 협회는 매년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한국문화와 관련하여 선정된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판문화콘텐츠를 집대성하고 나서 선별 전시하는 바, 이는 곧 전략적 방식의 한국 문화 해외 홍보 사업임을 뜻한다. 한국관 운영 사업을 통해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즉, 내부적으로는 한국문화의 심층을 들여다보며 자기인식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외부적으로는 한국문화의 고유함과 독창성 및 그 당대적, 미래적 가치를 홍보하고자 함이다. 이는 우리 문화의 최대 저장고인 문헌의 정리 작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바,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에서 출판콘텐츠를 중심에 두고 문화홍보와 교류에 나서는 이유이다.

올해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주제는 한국전통건축으로, 공식주제명은 ‘한국전통건축-자연을 닮은 집, 지혜를 담은 집’이었다. 독일 출판의 메카인 라이프치히 시에서 열리는 2016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장의 분위기와 2016년 한국관의 면모를 『재외동포신문』 기사로 미리 함께 살펴본다.

라이프치히. 읽기 페스티벌이라고 할 만큼 이번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는 책에 관련된 모든 것이 모인 그야말로 광대한 책 박람회였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3월 17-20일까지 열린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가 막을 내렸는데 작년보다 약 만여 명이 더 많은 26만 명이 참가하여 도서전 신기록을 갱신했고 42개국 참가 및 2천5백여 명의 저널리스트들이 참가하여 이번 박람회를 광범위하게 보도하였다고 한다.

3월 16일 저녁 전야제로 게반트하우스Gewandhaus에서 개회식을 가진 뒤, 그 다음 날부터 5개관에선 책

전시회 및 낭독회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강연 및 포럼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저녁에는 라이프치히 시 전 지역에서는 늦은 밤까지 낭독회 및 음악의 밤이 펼쳐졌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라이프치히 읽다!” 라는 타이틀 아래 “라이프치히 듣다!, 라이프치히 읽는 재미” 등 책에 관심을 갖도록 대중들을 일깨우는 제목들로 라이프치히 도서전이 문을 열었다.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박람회로 역사 깊은 박람회요 또 역사 깊은 도시다. (...) 올해도 라이프치히 시의 모든 호텔 및 그 주변 호텔까지 다 매진되는 등 그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행사를 진행하는 듯 열광하였고 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올해 유난히 관심을 끈 테마로는 “난민들 문제”로 “사랑은 모두에게, 증오는 그 누구도 Liebe für alle, Hass für keinen”, “평화를 위한 무슬림 Muslim für den Frieden!” 이라는 주제 아래 여기저기에서 강연 및 토론회, 좌담회가 열렸다. 이와 함께 이색적인 책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지 및 이슬람 책이 선을 보인 반면 한편에서는 기독교 및 가톨릭교에 관한 종교 서적 전시 및 종교인들의 참석 등 이색적인 분위기가 특이하였다.

(...) 역시 작년과 다름없이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것이 일본의 “망가 Manga”로 그 열기는 대단했다. 9만 6천여 명의 젊은 층 방문객들이 올해도 카니발을 연상하듯 얼굴 화장과 분장 그리고 환상적인 의상들을 입고 있었는데 전시장은 물론 온 시내가 망가 열기로 축제 분위기였다. 이 부스의 프로그램 중 한국 K-Pop 시연이 있었는데 약 10분에 걸친 이 시연에 많은 젊은이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 그 열기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그 짧은 시간으로 열기가 꺼져 버려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내년에 있을 테마 “한국 음악”의 전시회에서 이 열기를 느끼기를 열망하면서 내년을 기다려 본다.

작년엔 “한복! 점잖고 정숙한 우리 옷!”이라는 주제로 전시한 것에 이어 올해는 “한옥”으로 한국의 전통건축을 소개하면서 “자연을 닮은 집, 지혜를 담은 집”이라는 소주제로 전시하였다.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그리고 주독일한국문화원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등 여러 곳에서 협력, 후원하였으며 “한옥” 책이 한글과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전시되었으며 독일어 번역에는 김영자 교수가 그리고 영어에는 Tina Stubenrauch가 수고하였다.

한옥에 대하여 이기웅 이사장(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이며 열화당 대표)은 ‘라이프치히와의 인연 그리고 한국건축의 비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은 분단 한국이라는 명운에 처한 우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발심”이라며 독일은 통일 25주년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분단현실을 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그는 통일 한국을 꿈꾸며 전시회를 통해 독일과 소통하려는 그리움이 잠재해 있다고 전했다. 또 여러 전문교수들이 이 소개에 대하여 정리한 소책자를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소주제와 같이 “한옥”을 통하여 한국인의 정서, 문화, 한국인의 정신 등을 알려주려 노력하였다.

— 이영남 기자, 「2016 라이프치히 국제도서박람회 관람기」 『재외동포신문』, 2016. 3. 28.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개요

기간	2016년 3월 17일~20일(4일간)
장소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시장 약 3만평, 도시 전체
참가국	42개국
행사	3,200개(강연회, 낭독회 등)
방문객	260,000명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현황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출판, 인쇄, 판화 등의 예술적 생산이 왕성한 라이프치히 시에서 펼쳐진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총 5개의 전시관을 열어 연일 책을 사랑하는 수많은 관람객을 불러들였다. 국제출판상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다른 국제도서전과는 달리 작가와의 대화, 강연, 문화이벤트,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축제적 성격이 짙은 도서전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라이프치히 도서전 국제관에 42개국이 참여하였으며, 한국관(KOREA Pavilion)에서는 한국전통건축을 주제로 한 테마 전시가 진행되었고, 예년과는 달리 텍스트와 영상이 결합한 전시가 진행되었다.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6년 1월 2일-6월 30일
사업비	91,000,000원(국고보조금 80,000,000원, 자부담 11,000,000원)
사업 주최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하 국도협)
위치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시장 국제전시관(Hall 4) C401
규모	48m ²
주최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독일한국문화원, 한국문화번역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옥문화원, 문화재청, 한국국학진흥원, 국가한옥센터, 파주출판도시, 열화당책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계획 및 운영 참여자

이기웅(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장), 정재곤(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특임감독), 이기필(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연구원), 임원규(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총무운영위원), 조운형(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 이수정(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운영위원), 김성근(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권세훈(주독일한국문화원 원장), 김영자(독문학자), 기량(국립민속박물관 전시기획과장), 이상해(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김정신(단국대학교 교수), 전봉희(서울대학교 교수), 한종구(청운대학교 교수)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개요

위치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시장 국제전시관(Hall 4) C401
규모	48m ²
주최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독일한국문화원, 한국문학번역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옥문화원, 문화재청, 한국국학진흥원, 국가한옥센터, 파주출판도시, 열화당책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학선재
참여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유금외당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옥문화원, 문화재관리국, 수원화성운영재단, 국립수목원, 국가한옥센터, 삼성미술관 리움
참여출판사	경인문화사, 계명대학교출판부, 글항아리, 기문당, 김영사, 눈빛, 놀와, 다른세상, 대원사, 동녘, 동아일보사, 돌베개, 디자인하우스, 문예, 민속원, 민음사, 사람의무늬, 사계절, 씨앗을뿌리는사람, 솔, 시공아트, 아카넷, 열화당, 예문서원, 을유문화사, 조선일보사, 걸쳐그라퍼, 걸쳐북스, 평화, 학선재, 한길사, 한문화사, 현암사, 현실문화연구, 효형출판, 휴머니스트, B-arki, EOS, Stallion Press Hollym
참여자	이기웅(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장), 한종구(청운대 교수), 정재곤(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특임감독), 이기필(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연구원), 김영자(독문학자)
자문위원	이상해(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김정신(단국대학교 교수), 전봉희(서울대학교 교수), 한종구(청운대학교 교수), 권오복(건축 디자이너)
전시기획설치	파란네모
전시기획자문	기량(국립민속박물관 전시기획과장)
운영도움	스테판 W.(전시 인테리어 실무), 손창안(교민), 류시현(현지 유학생), 강호신(현지 유학생)

2016 라이프치히 도서관 한국관 전시 프로그램

전시주제	한국전통건축-자연을 닮은 집, 지혜를 담은 집
전시포커스	한국전통건축에 깃든 자연친화적 거주 사상과 그 실제 구현체
전시도서	한국전통건축 관련 주요 고문헌 영인본을 비롯한 약 200여종
주제도서	『한옥-우리 주거문화의 혼이 담긴 옛 살림집 풍경』(이기웅 엮음, 서현강·주병수 사진, 열화당, 2015) 『Hanok-Traditionellen Wohnhäuser Koreas』(herausgegeben von Yi Ki-ung, Photos von Seo Heun-kang, Joo Byoung-soo, EOS·Youlhwadang, 2016) 『Hanok, The Traditional Korean House』(Edited by Yi Ki-ung, Photographs by Seo Heun-kang & Joo Byoung-soo. Translated by Isabella Ofner, Tina Stubenrauch. B·Youlhwadang, 2016) 『우리네 옛 살림집』(김광언 저, 열화당, 2016)
주요영인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김종수 편, 전9책, 1801. 영인제작 학선제)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정조 편, 전8책, 1795. 영인제작 학선제)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사직서 편, 전5책, 1820-1842. 영인제작 학선제)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의궤청 편, 전3책, 18세기 말. 영인제작 학선제) 『궁궐지(宮闕志)』(편저자 미상, 전5책, 조선 후기. 영인제작 학선제) 『규장각지(奎章閣志)』(규장각 편, 1책, 조선시대 말. 영인제작 학선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행·홍언필 등 편, 전25책, 1611. 영인제작 학선제) 『산림경제(山林經濟)』(홍만선 저, 전4책, 연대 미상. 영인제작 학선제) 『택리지(擇里誌)』(이중환 저, 1책, 연대 미상. 영인제작 학선제)
특별전시도서	『땅의 깨달음-한국건축 사진집』(2016, 전11권, 삼성미술관 리움)
영상전시	「한국전통건축 인터뷰」(영문 자막, 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총 10종, 박종우 감독 제작, 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한옥 축조과정-소쇄원 광풍각 축조과정」(영문 자막, 전봉희 교수, 서울대 건축사 연구실 제공) 「한국 살림집과 목가구」(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종부(宗婦)」(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한국의 사계」(구본창 사진작가 제공) 「비대칭의 균형, 그리고 여백」(차장섭 교수 사진 영상)
저널	한국어판 -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저널』 영어판 - 『Journal for the Korea Pavilion in Leipzig Book Fair 2016』 독일어판 - 『Journal des Korea Pavillon auf der Leipziger Buchmesse 2016』
홍보자료	주독일한국문화원 발행 한국문화 홍보 자료 다수 / 파주출판도시 소개 및 홍보 자료
전시벽체	구본창 사진작가의 한국전통건축 관련 사진작품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사업 운영 성과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유럽 문화의 진입로이자 독일어 출판문화권의 메카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도서전으로,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역대 라이프치히 도서전 가운데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최대규모의 도서축제였다. 이 축제에 한국전통건축이라는 테마로 참가한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는 한국전통건축 관련 우수 콘텐츠와 그 인문학적 깊이를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이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문화와 독어권, 유럽권 문화간 교류와 소통의 활로를 마련하였다.

3월 17일에서 20일에 이르는 총 나흘 간 하루 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총 방문객수로는 약 만 명을 넘는 관람객이 전시기간 중 한국관을 방문하여 한국전통건축 관련 우수콘텐츠를 관람하고, 필요시 그 콘텐츠에 대해서 현장 도우미들로부터 독어로 소개받았다.

문헌전시와 영상전시를 병행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서전시양식을 선보였고, 디지털 세대를 포함한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소쇄원 광풍각 축조과정 영상은 건축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어린이 등 여러 층의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전통건축 관련 고문헌 영인본, 주제도서 독일어본, 특별전시도서(영어) 등이 특히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독일 국립도서관(사서 Ines Luzius), 함부르크 대학교(법학과 교수 Andreas Knobelsdorf), 드레스덴 대학교, 프리텐사우 신학대학교(사서 Summi Jin) 등 독일 국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에서 한국 도서를 구매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피력하였고, 이들과 교류하며 한국도서의 독일 대학도서관 등지에서의 진출 활로를 개척하였다.

한독문화교류와 한국 책의 독일어 출판물 유통을 희망하는 독일 출판사(J. H. W. Dietz 출판사 저작권 담당 Barbara Oh, Paramon 출판사 Sabine Finner, Duotincta 출판사 Jürgen Volk M. A.), 서점운영자(Lebensraum 서점 Sabine Schriever, 한국어 책 전문 출판사-서점 사장 Helmut Hetzer), 작가(Matthias Blumenstein, Christa Hasselhorst, Dominik Forster, Ellen I. Goldberg, Bernd Schacht), 저널리스트, 번역가(Dr. Klaus Dermutz), 문화사업가(독일 출판사 고문 Dr. Michael Schremmer, Paul-Henri Campbell, 독일 건축가 Jonathan K.) 등과 소통하는 등, 한독문화교류, 한독출판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럽 내 독일어 책 출판사(독일 EOS 출판사 부사장 Martin Trischberger), 영어 책 출판사(덴마크 B-Arki 출판사 Gilbert Hansen 사장, E-Book 전문 인도-미국 출판사 Apex Vijay Prasad) 담당자와 교류함으로써, 향후 한국출판물의 독일어, 영어 출판물 생산과 유통의 토대를 다졌다.

독어권, 유럽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교포신문 이영남 기자, 레겐스부르크 거주 김영자 박사, 뮌헨 거주 김정자 선생, 프랑크푸르트 거주 사업가 유철재 사장, 베를린 소재 디자인회사 파란네모 권오복 사장, 본 소재 올림피아드 여행사 이문삼 사장, 박루드밀라 등)과 연계하고 문화 루트를 만들어감으로써 유럽 문화권 내 한국문화 네트워크의 내실을 다졌다.

하루 평균 50여 명 이상의 한국 애호가들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전시된 도서들을 살펴보고, 한국관 운영자들과 한국의 문화, 출판, 최근 한국 현안 등 관심부분에 대해 소통, 교류하였다. 주독일한국문화원 원장을 비롯하여 실무자(권세훈 원장, 이동준 팀장 등)와 교류, 향후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주독일한국문화원과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동·중부 유럽 및 아시아 담당 매니저 Vladka Kupska), 라이프치히 도서전(조직위원회 매니저 Mariella Bremer) 등의 실무담당자들과 교류, 2017년 도서전에 관해 조율하였고 향후 한국관의 발전 방향에 관해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을 네 해째 무리 없이 치름으로써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에 힘입어 우리 출판물의 유럽 진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과 의무감을 갖추게 되었다. 2016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기간 동안 한국관 운영 주체인 (사)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의 이기웅 이사장이 노령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여, 현지의 독일 문화계 인사들과 현지의 한국 출신 문화계 인사들과 한국관 운영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파주출판도시 협동조합 명예이사장으로서 이들에게 파주출판도시를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6 라이프치히 도서관 한국관 사업 개선점

독일어권의 독어출판물 중심의 문화축제라는 라이프치히 도서전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최소 10~20종 이상의 우수 한국어출판물의 독일어본 전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등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한 유럽권 거의 전지역을 망라하고 있는 독일어권의 최대 출판문화축제인 만큼, 한국출판콘텐츠와 한국문화일반의 유럽권 진출의 교두보임에 확실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역량 있는 저술가, 작가, 번역가, 출판 및 번역 관련 기관, 퍼블리셔, 주한국독일문화원, 주독일한국문화원, (향후 국립한국문화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

작가와의 대화, 작가 강연, 문화 이벤트가 활발히 진행되는 축제적 성격의 도서전을 감안해 볼 때, 우수 한국 작가, 예술인의 도서전 공식 행사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며, 음악공연, 강연, 북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의 개최가 요청된다. 또한 이 행사는 독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장 바깥의 시내 행사장에서 음악공연, 강연 등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사 참여가 요망된다.

망가-코믹 전시관인 1관에서 열렸던 K-Pop 행사에서 볼 수 있듯, 음악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이 유럽권에서 불고 있고 또한 2017년 한국관 주제가 바로 '한국음악'인 만큼, 내년 도서전 기간 동안 우리 음악 관련 콘텐츠, 상품 등의 집중 전시 및 홍보가 시의적절하리라 판단되며 또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한 한국 문화 콘텐츠, 상품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참여, 전문가 집단의 협력후원이 필요하다.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시관 부스의 창조적 꾸밈새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전시관 부스 디자인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 전시관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며, 탄력적으로 디자인 작업이 착수되어야 한다.

2015년 라이프치히 한국관과는 달리 공연 및 체험 행사가 없어서 다소 단조로운 전시였기에, 2017년에는 공연 및 체험 행사가 풍성한 전시로 기획을 꾀할 필요가 있다.

엽서, 브로셔, A4홍보물, 홍보책자 등 안내, 홍보물이 다른 전시관에 비해 빈곤하였으며,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독일어권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 축제의 장인 '한국인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수상작은 『Frohburg』(픽션 부문, Guntram Vesper 작), 『Georg Forster. Between Freedom and Force of Nature』(논픽션 부문, Jürgen Goldstein 작) 등이었다. 매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도서 중에서 선정하여 수상하는 '라이프치히 도서전 수상작' 프로그램에 한국의 출판사,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연간 운영계획

- 2013 한글(훈민정음) - 한국인들은 무슨 문자로 어떻게 글 쓰는가
- 2014 한식(韓食) - 한국 음식, 무슨 재료로 어떻게 조리하는가
- 2015 한복(韓服) - 한국 전통복식, 무슨 옷을 어떻게 지어 입는가
- 2016 한국전통건축(韓屋) - 자연을 닮은 집, 지혜를 담은 집
- 2017 한국의 음악 - 기원에서부터 케이팝(K-Pop)까지
- 2018 한국의 춤 - 순응과 파격의 미학
- 2019 한국의 영화 - 한국 영화사와 그 결정적 주제들
- 2020 한국의 종이와 서화 - 한지의 우수함, 서화의 아름다움
- 2021 한국의 불교 - 불교미술, 그리고 한국 불교의 얼굴
- 2022 한국의 공예 - 나무, 돌, 금속과 함께해 온 생활미학

2017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계획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가 내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에서 소개할 주제는 ‘한국의 음악—기원에서부터 케이팝(K-Pop)까지’이다. 우리 문화를 이루는 가장 원초적인 기층이자 출발점을 이루는 ‘한글’을 필두로, 뒤이어 차례로 의.식.주를 주제로 다룬 이즈음, 2017년에는 우리 문화 중 본격적인 예술영역 소개의 첫 주제로 ‘한국의 음악’을 선보인다. 이 주제는 현재 유럽 내에서도 뜨겁게 불고 있는 케이팝 열풍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함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케이팝이 유구한 한국음악의 흐름 중 극히 적은 부분임을 유럽인들에게 보여 줘야 할 의무와 당위성에 보다 유의코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내년 도서전에서 한국음악의 총체적 모습을 보여 주고 또 그 변천과정을 노정시킴으로써, 음악으로 구현된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보편적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유네스코에 의해 선정된 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 판소리, 아리랑 등을 도서 전시뿐 아니라 실제적 재현(공연)을 병행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음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보편성을 유럽인들이 실감토록 하고 또 그네들의 예술적 감수성에 깊고 넓게 파고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처럼 내년 한국관의 주제가 재현예술인 음악인 만큼, 관련 핵심 도서 전시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공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현지에서 우리 문화의 보급과 선창에 힘쓰는 주독일한국문화원과의 협업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풍경



2016년 한국관의 주제는 ‘한국전통건축-자연을 닮은 집, 지혜를 담은 집’으로, 한국전통건축에 깃든 자연친화적 주거 사상과 그 실제 구현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16년 한국관 전시관 모습. 전시관 정면 외벽 부분은 창덕궁 내 관람정을 찍은 구본창의 사진작품으로 채워졌다.



한국관 입구에 설치된 두 개의 영상패널을 통해 총 일곱 개의 영상 콘텐츠가 전시·상영되었다.



2016년 한국관은 문헌 전시와 영상을 통한 전시를 병행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서전시 양식을 선보였다.



「소쇄원 광풍각 축조과정」 영상(전봉희 교수, 서울대 건축사 연구실 제공)은 건축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어린이 등 여러 층의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관람객들이 박종우 감독 제작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 영상(삼성미술관 리움 제공)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등 조선시대 영 조(營造), 축성(築城) 과정과 기술, 형태 등을 보여 주는 주요 고문헌의 영인본(학선재 제작)이 독립 전시되었다.



주제도서 『한옥—우리 주거문화의 혼이 담긴 옛 살림집 풍경』(이기웅 엮음, 서현강·주병수 사진) 국문판, 영문판, 독문판 3종과 특별전시도서 『땅의 깨달음—한국 건축 사진집』(전11권, 삼성미술관 리움)이 전면에 전시되었다.



한국관을 방문한 권세훈 주독일한국문화원장이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기웅 이사장, 정재곤 특임감독, 이기필 연구원, 한종구 청운대 교수, 권오복 디자이너와 함께 향후 라이프치히 도서전의 비전과 상호협력 방안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권세훈 주독일한국문화원장과 정재곤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특임감독이 2016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현황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독문화교류 및 한국 책의 독일어 출판물 유통을 희망하는 독일 현지의 출판사, 서점운영자, 작가, 저널리스트, 번역가, 문화사업가 등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한독문화교류, 한독출판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



독어권, 유럽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연계하고 문화 루트를 만들어감으로써 유럽 문화권 내 한국문화 네트워크의 내실을 다졌다. 독일 출판사 관계자인 미카엘 슈레머(Michael Schremer) 박사가 한국전통건축 관계 영인본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행사 중 하-민 음악 공연.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작가와의 대화, 작가 강연, 음악 공연, 체험 행사, 퍼레이드 등 각종 문화 이벤트가 활발히 진행되는 문화 페스티벌이다.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시관 부스의 창조적 꾸밈새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전시관 부스 디자인에 투입되어야 한다.

언론에 조명된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 한종구(청운대 교수), 「라이프치히 도서전 단상」 『한겨레신문』, 2016. 3. 29.
- 최익현 기자, 「세계에 더 다가선 한국전통건축 ... ‘문화의 집’ 보여줬다」 『교수신문』, 2016. 3. 21.
- 「‘한옥’에 라이프치히가 들어왔다」 『독서신문』, 2016. 3. 23.
- 유경종 기자, 「세계인의 책 축제에서 선보인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 『고양신문』, 2016. 1265호.
- 정재곤(불문학자),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다녀와서」, 『고양신문』, 2016. 1265호.
- 이영남 기자, 「2016 라이프치히 국제도서박람회 관람기」 『재외동포신문』, 2016. 3. 28.
- 성명제(외교부 서포터즈), 「작가와의 소통: 라이프치히 도서전」, 외교부 블로그, 2016. 3. 29.
(<http://blog.naver.com/mofakr/220668220785>)
- 엄정권 기자, 「집에는 격이 있어 家格, 한옥엔 나라의 격이 있다: 이기웅 엮음 『한옥』」 『독서신문』, 2016. 4. 6.

2016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의 전통건축' 운영

세계인의 책 축제에서 선보인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

책의 도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우리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 이기웅)는 '한국의 전통건축 : 자연을 담은 집, 지혜를 담은 집'이라는 주제로 한국관을 운영해 도서전을 찾는 관람객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화성성역의궤』 등 전통건축 관계 영인본 전시

이번 도서전에서는 한국 전통건축의 가치를 담은 주요 영인본 10종이 전시됐다. 대표적인 책이 『화성성역의궤』(1801, 전9책)다. 이 책은 1794년부터 진행된 화성 성곽 축조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돼 있는 책이다. 그 밖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 그리고 4대 궁궐의 건물에 관한 기록인 『궁궐지』, 경모궁 보수 기록이 실려 있는 『경모궁의궤』등도 함께 전시됐다.

주제 도서 『한옥』, 3개 국어로 발행

올해의 주제 도서는 『한옥(이)기용 역음, 서현강·주병수 사진, 열화당]이었다. 이 책은 국가 지정 중요민속문화재 가운데 전통가옥의 특색을 잘 보여 주는 집을 선정해 사진을 중심으로 간략한 역사와 특징을 소개한 책이다. 이



책에는 강릉 선교장, 구례 운조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살림집을 소개하고 있으며, 책 말미에는 용어 해설도 덧붙여 외국인들이 한옥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이번 도서전에 맞춰 내용이 축소된 형태의 독문판과 영문판도 별도로 발행했다.

책과 영상으로 만나는 한옥의 세계

이번 도서전 한국관에서는 주요 영인본과 주제 도서 외에도 한국 전통건축과 관계된 현대 도서 200종이 함께 전시됐다. 또한 한국 전통건축에 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영상물도 상영됐다.

아울러 올해의 주제인 한국 전통건축에 관한 다양한 글과 사진이 수록된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제널』도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돼 한국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배포됐다.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한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기웅 이사장은 제널에 게재된 글을 통해 "한국전통건축엔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상생하면서도 인간의 삶을 따듯이 돌보는 성숙한 삶의 지혜가 있다. 그 건축은 한반도의 오래된 산물이지만, 오늘에 세계에 전파돼야 마땅한 빛나는 삶의 지혜"라고 말했다.

한국의 언어와 의식주 소개 마무리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의 라이프치히 도서전 참가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매해 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글(2013), 한국의 음식(2014), 한국의 옷(2015)을 주제로 다뤘다. 올해 한국의 전통가옥을 소개하는 것을 끝으로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는 언어와 의식주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했다. 내년부터는 한국의 음악, 영화, 종이와 서화 등의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국관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경중 기자 dune789@naver.com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다녀와서

정재곤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특임감독, 불문학자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 이기웅)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건축 : 자연을 담은 집, 지혜를 담은 집'이라는 주제로 한국관을 운영했다. 행사에 참가한 정재곤 특임감독이 도서전의 현장을 담긴 참가기를 보내왔다.

지난 주 나흘 동안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국제도서전이 열렸다. 같은 기간 파리 도서전도 개최됐는데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돼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그동안 여러 국제도서전을 참관했지만, 파리 도서전이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견줘 이번에 직접 한국관 운영에 참여한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자못 색다른 감회가 있었다. 라이프치히 도

서전은 여타의 대규모 국제도서전과 비교할 때 '상업적'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다른 도서전들이 주로 해외저작권을 거래하는 거대한 '출판물 국제시장'이라 한다면, 라이프치히는 책 본연의 가치에 충실한 도서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출판 전문가들 뿐 아니라 책을 좋아하는 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도서 축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불과 인구 50만 명의 소도시인 이곳에서 도서전 기간 동안 2600건에 달하는 책 관련 행사가 도처에서 열린다고 하니, 입이 딱 벌어질 따름이다.

이 도시가 독일 통일 이후 쇠락을 거듭하다가 도시 재건의 첫 발판으로 국제도서전으로 성격을 바꿔 개회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다. 피테, 실러, 레싱 등의 걸출한 문인들이 깊은 발자취를 남겼고, 바흐, 멘델스존 등의 음악가가 거의 평생을 활동했으며, 2차대전 이전까지 독일 출판물의 절반이 발행됐을 정도로 출판업이 번성했던 이 도시는, 문화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문화인 그야말로 문화와 역사의 도시였다.

한국관 주제는 '한국의 전통건축'이

었다. 주제 도서인 『한옥』을 한국어, 독일어, 영어 3종으로 발행해 전시했고,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비롯한 전통건축 관계 영인본들과 다양한 현대 도서들이 선보였다. 전시부스 한편에서는 한옥에 관한 영상물도 상영했는데, 하루는 한 독일 꼬마가 부스 안으로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았던지 벽에 기대어 몸을 반쯤 숨긴 채 한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가옥의 짜맞춤이 '레고'를 연상시켰을까. 문화는 다르지만,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집의 기본개념은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준비해 간 책들을 보며 우리 전통건축의 자연 친화력과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금치 못하는 관람객들도 있었지만, 한옥의 알개뿐 아니라 우리의 풍수(風水)며 미풍양속도 서양 사람들이, 아니 서양 아이들까지 이해할 수 있게끔 연구해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 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는 한국관의 내년 주제는 '한국의 음악'이다.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한옥’에 라이프치히가 들어왔다

독서 우리 것 전시회
전통건축 영인본
영상과 함께 공개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한국의 전통건축’ 전시를 진행했다.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는 매년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려왔다. 2013년 처음으로 참가해 그동안 ‘한글’(2013), ‘한식(韓食)’(2014), ‘한복(韓服)’(2015)을 주제로 삼았고, 올해는 ‘한옥(韓屋)’을 소개했다. 우리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과 옷, 음식과 집을 소개하는 셈이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한국의 전통건축’을 주제로 주요 영인본 10종을 전시했다. 그 중 주목할 것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1801, 전9책)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건축 관련 문헌 중 하나로 이 책은 조선조의 축성 기술을 비롯해 1794년 1월부터 1796년 8월까지 진행된 화성 성곽 축조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돼 있다.

『화성성역의궤』가 화성이 어떻게 축조됐는지를 기록한 책이라면, 함께 전시되는 『원행음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1795, 전8책)는 화성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1820-1842, 전5책)에는 사직단에 관한 사실과 제례 등이 그림이,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18세기 말, 전3책)에는 경모궁 보수 기록이 실려 있다.

그 밖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 그리고 4대 궁궐의 건물에 관한 기록인 『궁궐지(宮闕志)』(조선 후기, 전5책), 국립도서관 규장각의 제도와 의식을 기록한 『규장각지(奎章閣志)』(조선 말, 1책),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통건축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611, 전25책), 『산림경제(山林經濟)』(조선 말, 전4책), 『택리지(澤里誌)』(조선 말, 1책), 그림을 통해 전통가옥을 엿볼 수 있는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1797, 전4책) 등도 함께 전시됐다.

주요 영인본 외에 한국 전통건축 관계 현대 도서 200종도 만나

볼 수 있다. 궁궐, 성곽, 서원, 사찰, 정사, 민속마을, 민가, 전통정원 등 다양한 고건축물에 관한 책들이 포함되며, 영문, 독문, 불문으로 제작된 도서도 함께 소개된다. 한국 전통건축에 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영상물도 상영된다. 서울대학교 건축과 연구실에서 제작한 「소쇄원 축조과정」,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제작한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과 「한국전통건축 인터뷰」, 그리고 구본창 사진가의 사진으로 제작한 「한국의 사계」, 강원대 차장섭 교수가 한옥을 주제로 촬영한 「비대칭의 균형, 그리고 여백」,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작한 「한국 살림집과 목가구」 「종부(宗婦)」 등이 각각 60인치 영상패널과 태블릿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제공됐다.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관계자는 “이번 라이프치히 도서전의 주제가 ‘한옥’인 만큼 우리 전통 건축과 관련해 유익한 정보를 독일 현지에서 전했다. 내년부터는 한국의 음악, 영화, 종이와 서화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전시를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라이프치히 도서전 단상



시론

한중구
청운대 건축학과 교수

삶과 이야기가 담긴 건축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업인 나에게 책은 각별하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품고 있어 저마다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책에 대한 관심으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전이 열리는 라이프치히로 향했다. 자그마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라이프치히는 바흐가 살았던 음악의 도시이자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된 월요기도회가 시작된 니콜라이교회가 있는 건축과 역사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독일의 문화와 지식이 망라되는 도서박람회가 1632년 독일 최초로 시작된 유서 깊은 출판문화의 도시라는 것이다.

건축과 새내기들은 건축학개론 시간에 흔히 세계 최초의 건축 책인 <건축십서>를 접하게 된다. 이 책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저술로 전해지는, 건축에 관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로마 건축의 역사·미학·공학이 망라된, 완전한 형태로 현존하는 유일한 고대 건축서적으로, 오늘날의 서양건축은 이 책이 있었기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책은 한 문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도서전은 매년 3월 열려 세계에서 16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각종 신간과 고서가 전시되는, 책을 매개로 라이프치히시 전체의 문화축제다. 이 기간 동안 도시는 그윽한 책의 향기로 넘쳐난다. 출판인들만을 위한 여는 도서전과는 달리, 저자와 독자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만남의 장이자, 지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대한 문화교류의 장이다. 이번에도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로 지탄해 암살된 넴초프의 1주기를 맞아 그의 딸이 초대되어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 도서전을 자국의 문화적 역량과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장으로 국가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많은 전시 부스 중에 한국관도 있었다. 한국관 운영은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가 주축이 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가운데, 협회 관계자와 현지 유학생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올해의 주제인 '한국 전통건축'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주제 도서인 <한옥>을 비롯한 현대 도서들과, 조선 영조 때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데 소요된 모든 것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 등 전통건축 관계 고문헌 영인본들이 전시되었다. 부스 한편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양동마을 등에 관한 영상물도 상영되었다. 당초 잠깐 들를 요량이었으나, 전시부스에 발을 들여놓자 이러한 문헌들은 나를 전체 일정한 옛세 동안 함께하도록 강하게 붙잡았다.

6박7일 동안 행사를 참관하면서 한국 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일본은 한 전시관 전체를 '망가'를 중심으로 한 일본 문화로 점령하고 있었고, 독일의 젊은 이들은 망가에 나오는 복장으로 코스프레를 하며 전시장을 메웠다. 그러나 한국관은,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규모 면에서 일본과 비교가 안 되었다. 그래서인지, 오로지 책과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라이프치히를 거점 삼아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애써온 이기웅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장의 뜻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한 국가가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역량이나 국민소득 등 경제력 못지않게 문화가 단단히 구축되어야 한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말처럼, 문화는 끊임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은 곧 책이며, 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공유된다. 그 기록은 나의 기록이고 나의 역사이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었다. 그대여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겨레』, 2016. 3. 29.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는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기반조성 연구, 국제 문화 교류와 협력,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그리고 관련된 여러 실천 활동을 통해 문화 가치를 실현하려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국제도서전 한국관 운영 사업, 안중근기념 영혼도서관 사업, 팜시티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 한국 안팎을 넘나들며 문화를 견실히, 바로 세우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기웅(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도시 명예이사장)

이사 강운구(사진가), 성진기(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승효상(건축가), 양성전(목사), 윤풍식(국민통신 대표이사), 이강백(강릉 선교장 관장), 이기연(사업가), 이은(명필름 대표), 정진백(한국사상연구원장), 조윤희(편집자)

감사 정세현(부원비엠에스 대표)

사무국 정재곤(특임감독), 이기필(연구원), 임원규(총무운영위원)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25, 1층 (파주출판도시)

전화 031-955-7030 / 팩스 031-955-7010 / 이메일 korea-incca@naver.com / 웹사이트 www.incca.kr